

정읍·보령·홍천·영덕아산병원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연계 업무협약 체결



이필량 보령아산병원 원장(왼쪽 첫 번째)과 관계자들.

정읍·보령·홍천·영덕아산병원이 각 지자체와 지역맞춤형 통합돌봄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3월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과 함께 병원에서 가정으로의 연속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의료기관은 퇴원을 앞둔 환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평가해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김잔디 정읍아산병원 원장(오른쪽 다섯 번째)과 관계자들.

환자를 지자체에 연계하게 된다.

제일 먼저 2월 5일 보령아산병원이 보령시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홍천아산병원은 3월 3일, 정읍아산병원은 3월 18일, 영덕아산병원은 3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돌봄체계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강릉아산병원

신종감염병 위기 대응 긴급치료병상 확충



유창식 강릉아산병원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관계자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코로나19 전담 중증응급의료센터'와 '국민안심병원' 역할을 맡았던 강릉아산병원은 4월 1일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해 긴급치료병상을 확충했다. 긴급치료병상은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시 중증 및 준중증 감염병 환자를 격리된 공간에서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해 음압 시설을 갖춘 병상이다. 강릉아산병원은 정부의 '신종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을 통해 긴급치료병상을 기존 6병상에서 20병상 규모로 확충했다. 이번 긴급치료병상 확충을 통해 강릉아산병원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 내 중증환자를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읍아산병원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선정



2025년 5월 문을 연 정읍아산병원 소아병동.

정읍아산병원은 3월 14일 보건복지부 주관 '지방협업형 필수 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의 거점 병원과 동네의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아진료 등 필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사업이다. 정읍아산병원은 소아입원 및 응급진료(야간·휴일 포함)를 총괄하고, 동네의원에서는 경증 외래 진료를 담당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의뢰·회송 및 진료정보 교류체계를 정비해 환자가 지역 내에서 적시에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읍아산병원은 2025년 5월부터 소아외래 진료센터와 소아병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 참여로 서남권 소아의료허브 도약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